

제2 서해안고속도로 2018년 일괄 개통

이달 말 착공

서해안 지역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2018년에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시흥~평택~홍성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이달 말 착공해 우선 평택~시흥 구간을 2013년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겠다고 업무 보고까지 한 상황이라 완공 시점이 2018년에서 1~2년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가 서해대교 부근에서 정체가 심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이 사업은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하며 구간마다 부분 개통이 아닌 2018년에 일괄 개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노선은 서평택에서 아산, 예산 등 충남 내륙을 거쳐 홍성을 잇는 총 66km(왕복4차선) 구간으로 정해졌다.

당초 충청남도는 서평택에서 아산만을 거쳐 홍성으로 가는 구간을 원했지만 국토부는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서해대교가 공법상 차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도

리고 충남 내륙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우회하기로 했다.

즉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아산만을 통과할 경우 교량 건설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2001년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에서 목포까지 353km를 연결해 그동안 8시간 걸리던 인천-목포 주행시간이 4시간대로 줄어들었고 연간 6천억원 가까운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천일염·염전은 최고의 관광상품”

전남발전연구원 “생태체험장 조성 등 브랜드화” 주장

천일염의 식품화를 계기로 전국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전남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육성함과 동시에 염전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간행물 ‘대전인포’를 통해 발표한 ‘염전의 문화적 가치제고와 천일염 명품화전략’에서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물로 분류되던 천일염

이 28일부터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23만5천t(전국의 82.4%)을 생산할 정도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전남 천일염을 새로운 친환경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고, 염전도 역사·문화적 가치로 포장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남의 갯벌 천일염은 성분과 효능면에서 세계 최고인

프랑스 게랑드 산 천일염에 뒤지지 않음이 밝혀져 명품으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자연친화적 생산환경의 차별적 특징을 어필할 수 있는 명품브랜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안(중도) 지역이 천일염 최대 생산지라는 점과 천일염이 발효식품을 비롯한 전통 장류에 필수적인 재료로서 남도음식의 근원인 점을 감안, 전통장·된장·젓갈 등 전통음식 등과 연계된 음식문화 및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제19차 정기총회가 27일 춘천리데니콘도에서 열렸다.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이순복 경남신문 회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대표이사, 최승익 강원일보 회장, 이용길 매일신문 사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왼쪽부터).

김원일보=최유진 기자

여수-상하이 엑스포 ‘윈윈’

성공 개최 위한 업무 협약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상하이세계박람회 사무국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손을 맞잡았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2010상하이세계박람회 사무협조

국’은 27일 서울 삼성동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양 국의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업무 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장 홍승우 조직위원장과 상하이 세계박람회 Hong Hao 사무협조국장이 참석해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

에 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 양해각서에 따라 ▲박람회 준비과정 제반사항 ▲박람회 전시기간 운영과정 제반사항 ▲기타 상호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 실무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절차, 정보제공 범위, 각종 행정절차, 일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양만권에 외국 특화대학 유치 추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세계의 유명 특화대학을 집결하는 ‘글로벌시티 밸리(Gloversity-Valley)’가 추진된다.

전남도는 “28일 서울 매리트호텔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선조

일상해상산업(주)회장, 노찬용 영산대학교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 특화대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Gloversity-Valley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듯 각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세계 각국의 단과대학을 유치해 거대

한 종합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협력기관들은 조만간 종합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에 Gloversity-Valley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특화대학 설립·운영에 따른 승인신청 등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기네스북 오른 여수 ‘쌍둥이마을’ 20년전 48쌍 →현재는 단 1쌍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중촌마을. 여수시내에서 5km 가량 떨어진 52가구가 사는 조그만 마을이지만 기네스북에 오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기네스북 등재 사유는 바로 ‘쌍둥이마을’. 1989년 기네스북에 오르기 전 중촌마을에는 최대 48쌍의 쌍둥이가 살고 있었다. 기네스북 등재와 함께 중촌마을은 국내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봉우리가 두 개인 쌍봉산의 기를 받아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다는 속설을 믿은 여성들이 태몽을 꾸고 싶어 전국에서 불러들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이런 쌍둥이 마을의 명맥이 이제 끊길 처지에 놓였다. 대부분의 쌍둥이들이 사망했거나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현재는 단 1쌍의 쌍둥이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아이 울음 소리가 그친 지 오랜 데다 현재 살고 있는 미혼의 30대 여성 쌍둥이도 다른 농촌여

성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결혼해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면 쌍둥이 마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아이 울음 소리가 그치지 않으면서 현재는 학생 수가 12명에 불과한 데다 내년부턴 입학할 학생이 없어 폐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촌마을 오유암(64) 이장은 27일 “쌍봉산의 정기를 받아 여성들이 쌍둥이는 물론 아이들을 순산해 잘 키우면서 다복하게 살아왔는데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40대 이하 연령층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쌍둥이는 아니어도 마을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광양은 세계 최초 김양식지

일본보다 40여년 앞서 각종 역사 문헌 입증

세계 최초 김 양식 발생지가 광양이라는 사실이 각종 역사적 문헌에 나와 있어 관심을 끈다.

사단법인 김 시식지 유적 보존회(회장 김옥현 전 광양시장)가 최근 출판한 ‘광양 김 시식지’라는 책자에 따르면 현재의 광양시 태인동에서는 일본이 세계 최초의 김 양식 발생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겐로쿠 시대(1688~1703년)보다 훨씬 앞선 1640~1660년에 김 양식을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도 기술돼 있다. 김 시식의 주인공은 김여의공. 조선 인조때인 1640~1660년 광양 태인도에서 처음 김을 양식

했다는 내용이 1714년 2월에 당시 광양 현감인 허삼이 쓴 김여의 공의 묘표에도 전해내려 온다.

현재 광양에는 김여의 공의 위패 등이 있는 인호사, 김 생산도 구 32층 53점이 전시돼 있는 김 시식지 유물 전시관이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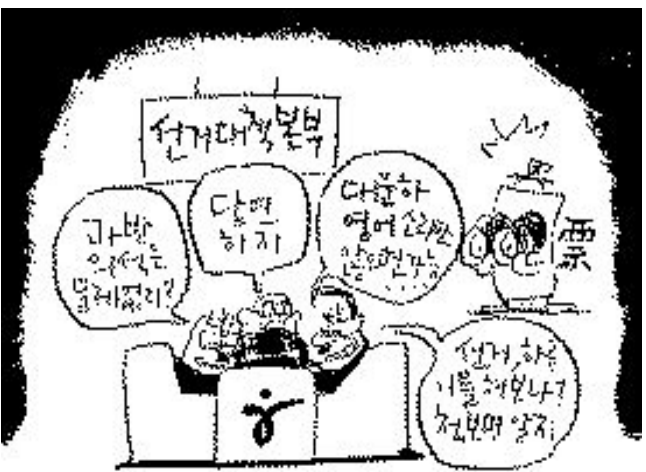
김 시식지 유물 전시관은 지난 1987년 전라남도 기념물 11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데 김과 관련한 지정 문화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김의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놀이인 ‘용지 큰줄다리기’가 약 300여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27일 “2억여원의 예산으로 비좁은 현 유물전시관을 이전 증축해 세계 최초의 김 시식지로서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꿈도 야무지다

(개별기고 섹션)

연락처: 장례식장(062)231-18902
학교(062)676-11475

학교법인 석산학원(광주석산고등학교 설립자) 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손성규께서 속환으로 2008년 3월 27일(목) 오전 1시 20분 소천 하셨습니다)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광주석산고등학교 임직원 일동

- 호상: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구희연
- 사위: 이치현 미국 미조리 주립대 교수
- 자부: 국찬표 서장대 교수
- 자부: 강혜경 유경 미국 미조리 주립대 교수
- 딸: 유진
- 아들: 손용선 (주)인재아트건설 대표 학교법인 석산학원 이사장

빈 소: 광주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영결식장: 광주석산고등학교 강당(3월 29일) 오전 10시
장 지: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선영하
2008년 3월 28일

밀양손공성규(호: 인재)씨(광주석산고등학교 설립자·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께서 속환으로 2008년 3월 27일(목) 오전 1시 20분(향년 9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셨습니다. 알리드립니다.

訃告